



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김 경 희¹⁾ · 김 지 수²⁾

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생

= Abstract =

Risk Factors Influencing High School Students to Runaway*

Kim, Kyunghee¹⁾ · Kim, Jisu²⁾

1)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risk factors influencing high school students to runaway from hom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related factors was done.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survey on causal relations were 974 students enrolled in high school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collected in June and July, 2003 were put in t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build a prediction model. **Results:** 1) Individual- related factors for running away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experience with smoking and sexual intercourse. 2) Family- related factors for running away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economic status and physically ill-treatment of the types of ill-treatment. 3) social environment- related factors for running away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Running away from home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as associated not only with individual factors, but also with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e findings of study suggest that board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running away form home by adolescent.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 program be developed that can help control the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along with follow up study to verify the model.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Runaway experience

주요어 : 고등학생, 가출, 위험요인

* 이 논문은 2006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06*

교신저자 : 김지수(E-mail: jisu-1980@hanmail.net)

투고일: 2007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19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yung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 +82-2-820-5670 Fax; +82-2-824-7961 E-mail: kyung@ca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인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해 심한 긴장이 야기되며 사회적으로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Cho, 2004).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부여되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과잉기대는 대인관계 및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고등학생의 90% 이상이 가정, 학교, 대인관계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적응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30% 이상이 신경증, 우울증, 성격장애, 분열증 등을 보이고 있다(Kim, 1999). 이러한 청소년들이 범하게 되는 많은 반사회적 행위 가운데 청소년의 가출은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의 특성 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성장하는 청소년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또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Bae & Joen, 2002; Lee, 2004).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출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가출 청소년은 16,894명으로 2003년 13,374명에 비해서 3,520명이 증가하여 26.3%의 증가율을 보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그러나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고 형식적으로는 가출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해지역을 접근하면서 가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다면 실질적 가출 청소년의 수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Kang, 2003).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은 부적절한 숙식, 거리 생활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좌절감, 소외감, 우울증, 불안감, 자살에 대한 생각,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한다(Kang, 2003).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자살, 폭력, 약물남용 및 윤락행위 등 사회적 비행과 범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청소년 가출은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예측된 가출 위험요인 조절과 관련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Chung, 2000).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주로 뉴스 시사적 가치가 있을 때만 언급되어 질 뿐 국가나 지역사회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Cho, 2005).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청소년 가출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원인을 살펴보면, 개인관련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환경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아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가출비율이 남학생의 가출비율보다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Powers, Eckenrode, & Jaklitsch, 1990; Kang, 2003)가 있는 반면에 Chung과 Ann(2001)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출 충동율이 높고 가출충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된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Chung(2000)은 고등학교 1학년의 가출경험이 다른 학년의 가출경험보다 높았음을 보고한 반면 Lee, Kim, Kim과 Chung(2006)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가출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학교성적이 낮았으며, 음주, 흡연, 약물, 비행 경험과 성경험의 유무와 관련이 있었다(Chung, 2000; Chung & Ann, 2001; Lee et al., 2006; Ruby, 2006; Thompson, Zittel-palamara, & Forehand, 2005). 또한 성격요인이 가출 예방을 위해서 조절되어야 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Chung(2000)은 가출 경험군에서 비가출 경험군 보다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반사회적성향, 우울성향의 점수는 높았으나 사회적성향,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Park과 Kim(2002)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출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규범이나 가치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근원이 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결혼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Chung, 2000; Chung & Ann, 2001; Lee, 2004), 가족 기능, 양육 형태와 의사소통 양상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Bae & Joen, 2002; Chung, 2000; Lee, 2004; Ruby, 2006; Slenick, Vasquez, & Bittinger, 2002). 또한 Chung(2000)은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측면에서 가출 경험군이 비가출 경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수준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Lee, 2004; Lee et al., 2006; Park & Kim, 2002; Slensick et al., 2002).

청소년의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학교와 또래집단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 및 기타 학교생활 참여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싫어할수록 비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1995). 또한 Park과 Kim(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가출 경험군이 가출 경험군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친구 집단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행동을 모방하며 어떤 행동결정에 있어서 부모나 선생님의 말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Kim(2001)은 비행친구와 가까이 지내거나 친구

지향적일 때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아지고,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비행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2004)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접촉 정도와 비행친구의 수를 보고하였다.

이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성적, 음주·흡연·약물·비행·성경험과 성격특성, 스트레스를 포함하였으며, 가정 관련요인으로는 함께 사는 부모,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수준, 부모문제행동과 의사소통 양상, 학대, 가족기능을 포함하였다. 사회·환경 관련요인 중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생활만족도, 교사와의 관계를 친구요인으로는 친구의 애착도, 친구에 대한 필요도,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및 태도 비행친구의 수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가정, 사회·환경 관련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개인 관련요인의 제 변수와 가출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고등학생의 가정 관련요인의 제 변수와 가출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고등학생의 사회·환경 관련요인의 제 변수와 가출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환경 관련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상황관련이론(situation relating theory)수준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 대상학교는 남자고등학교 2개교, 남·여 공학교고등학교 2개교 와 여자고등학교 2개교이었다. 연

구대상자는 총 1,238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264부를 제외한 974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도구

● 가출경험

대상자의 가출 경험에 대한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출경험이 1번 이상 있으면 가출군, 가출경험이 없으면 비가출군으로 정의하였다.

● 성격특성

Kim과 Kim(199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성향(11문항),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10문항), 반사회적 성격(10문항), 우울성향(9문항), 자아존중감(5문항)의 5가지 하부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당시 매우 그렇다(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 6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 Alpha 계수 .787~.899범위였으며 본 조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사회성향이 .815,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이 .864,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796, 우울성향이 .738, 자아존중감이 .752였다.

● 스트레스

Rowlison & Felner(1988)의 DHQ(Daily Hassles Questionnaire)와 Han과 Yoo(1995)의 도구를 참조한 Park(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2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02) 도구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89였다.

● 부모의 문제행동

Kwo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박·외도·음주·흡연·비치료적 약물사용 여부 등의 5문항을 부·모 각각에 대해(총 10문항)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청소년이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 .668, 모 .831이었다.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Kwon(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부요인으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6

문항), 자녀에게 비위를 맞추는 내용(4문항), 부모의 희생적인 면을 반영하는 문항(3문항),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13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Kwon(1997)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65~.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878, 자녀에게 비위를 맞추는 형 .652, 희생형 .735,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 .909이었다.

● 학대경험

Straus(1980)와 Go(1992), Hong(1998)의 도구를 참조한 Chung(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신체적 학대(6문항), 정서적 학대(6문항), 방임(7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느끼는 학대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Chung(200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48~.8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신체적 학대가 .854, 정서적 학대가 .857, 방임은 .811이었다.

● 가족기능

Kim과 Park(1995)의 도구를 사용, 가족에 대한 애착(5문항), 부모감독(6문항)의 2가지 하부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936, 이었고 부모 감독은 .861이었다.

● 학교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4문항), 교사와의 관계(4문항)의 2가지 하부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고, 교사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888, 교사와의 관계는 .732이었다.

● 친구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친구에 대한 애착도(8문항), 필요도(4문항), 비행경험 친구의 수(11문항),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8문항),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8문항)의 5가지 하부요인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도·필요도는 높고, 비행경험 친구의 수는 많으며,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은 높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는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친구에 대한 애착도

.894, 친구의 필요도 .713, 비행경험 친구의 수 .912,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824,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 .823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장과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5~40분 정도였으며 신뢰도와 수거율을 높이고자 교실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설명하였고, 배부당일에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했으며, 가출 경험군과 비가출 경험군 간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 가정, 사회 환경 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는 Chi-square 검정과 t-test를 각각 실시하였다. 가출 경험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기틀에 제시된 개인, 가정, 사회·환경 관련 제 변수에 대해 목표변수 선택방법(Purposeful selection method)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29.2%, 여자가 70.8%로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26.8%, 2학년 34.3%, 3학년 38.9%였다. 성적은 중위권이 57.4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상위권이 37.4%, 하위권이 5.2%이었다. 함께 사는 부모는 친부모가 82.3%였으며, 17.7%는 기타로 응답하였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60.8%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잘사는 편이 11.9%, 어려운 편이 27.3%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고졸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 23.2%, 대졸 이상이 16.9%순이었다. 모의 학력 또한 고졸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 31.1%, 대졸 이상이 9.2%순이었다. 부의 직업은 정규직이 58.9%로 과반수이상이었고 비정규직 38.4%, 무직 2.7%순이었다. 모의 직업은 정규직이 55.5%로 과반수이상이었고 무직 28.6%, 비정규직 38.4%순이었다. 음주 경험은 응답자의 80.4%가 있다고 하였으며, 흡연 경험 또한 53.6%가 있다고 하였다. 비행경험은 78.0%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물경험은 7.8%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8%로 나타났으며, 17.6%의 학생이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974)

| Variables | Classification | Frequency(%) |
|------------------------------|-------------------------|--------------|
| Gender | Male | 284(29.2) |
| | Female | 690(70.8) |
| Grade | 10th grade | 261(26.8) |
| | 11th grade | 334(34.3) |
| | 12th grade | 379(38.9) |
| School record | High ranking | 364(37.4) |
| | Middle ranking | 559(57.4) |
| | Low ranking | 51(5.2) |
| Parental living arrangement | Both biological parents | 802(82.3) |
| | Others | 172(17.7) |
| Economic status | High | 116(11.9) |
| | Moderate | 592(60.8) |
| | Low | 266(27.3) |
| Level of fa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 226(23.2) |
| | High school | 583(59.9) |
| | University | 165(16.9) |
| Level of mo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 303(31.1) |
| | High school | 581(59.7) |
| | University | 90(9.2) |
| Occupation of father | Inoccupation | 26(2.7) |
| | Irregular occupation | 374(38.4) |
| | Regular occupation | 574(58.9) |
| Occupation of mother | Inoccupation | 279(28.6) |
| | Irregular occupation | 154(15.8) |
| | Regular occupation | 541(55.5) |
| Drinking | None | 191(19.6) |
| | Have | 783(80.4) |
| Smoking | None | 452(46.4) |
| | Have | 522(53.6) |
| Delinquency | None | 214(22.0) |
| | Have | 760(78.0) |
| Use of non-therapeutic drugs | None | 898(92.2) |
| | Have | 76(7.8) |
| Sexual intercourse | None | 830(85.2) |
| | Have | 144(14.8) |
| Runaway | None | 803(82.4) |
| | Have | 171(17.6) |

대상자의 개인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개인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 분석은 <Table 2>와 같다. 가출 경험율을 성별로 분류해보면 남학생이 22.9%로 여학생 15.4%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년별로는 1학년이 14.6%, 2학년 15.6%, 3학년 21.4%로 학년이 높을수록 가출 경험율이 높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2). 학교 성적별로는 상위권이 16.2%, 중위권 18.4%, 하위권 17.6%로 중위권 학생들의 가출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688).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20.7%,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의 4.7%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흡연 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27.6%,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의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 약물 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율 또한 약물 경험이 있는 학생의 42.1%, 약물 경험이 없는 학생의 1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이 22.1%, 가출 경험이 없는 학생이 1.4%로 거의 20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성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 경험율 또한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41.0%, 성경험이 없는 학생의 1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성격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정신신체증상 호소 성향(가출 경험군: 24.51±0.62, 비가출 경험군: 22.81±0.32), 반사회적 성향(가출 경험군: 27.42±0.60, 비가출 경험군: 23.53±0.26)에서의 평균은 가출 경험군이 비가출 경험군보다 높았는데, 정신신체증상 호소 경향(p=.015)과 반사회적 성향(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성격 특성 중 사회성향(가출 경험군: 37.77±0.52, 비가출 경험군: 36.83±0.25)의 평균은 가출 경험군에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18). 성격 특성 중 우울성향(가출 경험군: 24.81±0.47, 비가출 경험군: 24.96±0.22)과 자아존중감(가출 경험군: 15.44±0.32, 비가출 경험군:

<Table 2>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runaway experi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of the students (N=974)

| Variables | Classification | Runaway | | χ ² (t) | P |
|-----------|----------------|------------------------|------------------------|--------------------|------|
| | | None N(%) M(SE)* | Have N(%) M(SE)* | | |
| Gender | Male | 219(77.1) | 65(22.9) | 7.871 | .005 |
| | Female | 584(84.6) | 106(15.4) | | |
| Grade | 10th grade | 223(85.4) | 38(14.6) | 6.343 | .042 |
| | 11th grade | 282(84.4) | 52(15.6) | | |
| | 12th grade | 298(78.6) | 81(21.4) | | |

<Table 2>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runaway experi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of the students(continued)
(N=974)

| Variables | Classification | Runaway | | $\chi^2(t)$ | P |
|---------------------------------|---------------------------------|------------------------|------------------------|-------------|------|
| | | None N(%) M(SE)* | Have N(%) M(SE)* | | |
| School record | High ranking | 305(83.8) | 59(16.2) | .749 | .688 |
| | Middle ranking | 456(81.6) | 103(18.4) | | |
| | Low ranking | 42(82.4) | 9(17.6) | | |
| Drinking | None | 182(95.3) | 9(4.7) | 27.081 | .000 |
| | Have | 621(79.3) | 162(20.7) | | |
| Smoking | None | 425(94.0) | 27(6.0) | 78.177 | .000 |
| | Have | 378(72.4) | 144(27.6) | | |
| Delinquency | None | 759(84.5) | 139(15.5) | 34.321 | .000 |
| | Have | 44(57.9) | 32(42.1) | | |
| Use of non-therapeutic drugs | None | 211(98.6) | 3(1.4) | 49.449 | .000 |
| | Have | 592(77.9) | 168(22.1) | | |
| Sexual intercourse | None | 718(86.5) | 112(13.5) | 64.013 | .000 |
| | Have | 85(59.0) | 59(41.0) | | |
| Personality traits | Socialization traits | 36.83(.25)* | 37.77(.52)* | (-1.567) | .118 |
| | Psychosomatic-complaints traits | 22.81(.32)* | 24.51(.62)* | (-2.447) | .015 |
| | Antisocial traits | 23.53(.26)* | 27.42(.60)* | (-6.154) | .000 |
| | Depression traits | 24.96(.22)* | 24.81(.47)* | (.289) | .772 |
| | Self-respect traits | 15.79(.15)* | 15.44(.32)* | (.998) | .318 |
| Stress | | 27.05(.23)* | 27.89(.60)* | (-1.305) | .193 |

15.79±0.15)의 평균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우울성향(p=.772)과 자아존중감(p=.31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차이 또한 가출 경험군(27.89±0.60)과 비가출 경험군(27.05±.2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93).

대상자의 가정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가정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분석은 <Table 3>과 같다. 가정관련 요인에서 함께 사는 부모별로 살펴보면, 함께 사는 부모가 기타인 경우의 가출 경험율은 23.3%로 친부모 혹은 생부, 생모인 경우의 가출 경험율 16.3%에 비해 높은 가출 경험율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0). 부의 학력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중졸 이하 19.5%, 고졸 16.1%, 대졸 이상 20.0%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54). 모의 학력에 따른 가출 경험율도 중졸 이하 16.8%, 고졸 17.4%, 대졸 이상 21.1%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635). 부의 직업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부의 직업이 정규직인 학생의 18.5%, 비정규직인 학생의 15.2%, 무직인 학생의 30.8%의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8). 모의 직

업에 따른 가출 경험율도 정규직인 학생의 18.9%, 비정규직인 학생의 18.2%, 무직인 학생의 14.7%의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25). 경제 상태에 따른 가출 경험율은 잘사는 편의 학생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운 편 학생의 21.8%, 보통인 학생이 13.9%의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부모 문제 행동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의 문제 행동 평균은 가출 경험군(10.58±0.37)과 비가출 경험군(9.85±0.1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0). 모의 문제 행동 평균도 가출 경험군(8.02±0.38)과 비가출 경험군(7.00±0.1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2). 의사소통 유형 중에는 불성실, 음박, 평가형에서 평균이 가출 경험군(30.57±0.98)과 비가출 경험군(26.40±0.3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반면에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형(가출 경험군: 17.18± 0.50, 비가출 경험군: 18.04±0.20), 비위맞추는 형(가출 경험군: 10.04±0.27, 비가출 경험군: 10.10±0.11), 희생형(가출 경험군: 10.17±0.26, 비가출 경험군: 10.32±0.10)에서는 가출 경험군과 비가출 경험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개방형: p=.118, 비위맞추는 형: p=.834, 희생형: p=.616). 학대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가출 경험군(16.53±0.49)과 비가출 경험군(14.85±0.2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 신체적 학대(가출 경험군: 12.96±0.48, 비가출 경험군: 10.60±0.18)와 정서적 학대(가출

<Table 3>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runaway experi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of the students (N=974)

| Variables | Classification | Runaway | | $\chi^2(t)$ | P |
|-----------------------------|---------------------------------------|------------------------|------------------------|-------------|------|
| | | None N(%) M(SE)* | Have N(%) M(SE)* | | |
| Parental living arrangement | Both biological parents | 671(83.7) | 131(16.3) | 4.688 | .030 |
| | Others | 132(76.7) | 40(23.3) | | |
| Level of fa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 182(80.5) | 44(19.5) | 2.079 | .354 |
| | High school | 489(83.9) | 94(16.1) | | |
| | University | 132(80.0) | 33(20.0) | | |
| Level of mo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 252(83.2) | 51(16.8) | .908 | .635 |
| | High school | 480(82.6) | 101(17.4) | | |
| | University | 71(78.9) | 19(21.1) | | |
| Occupation of father | Unemployed | 18(69.2) | 8(30.8) | 4.850 | .088 |
| | Irregular employment | 317(84.8) | 57(15.2) | | |
| | Regular occupation | 468(81.5) | 106(18.5) | | |
| Occupation of mother | Unemployed | 238(85.3) | 41(14.7) | 2.249 | .325 |
| | Irregular employment | 126(81.8) | 28(18.2) | | |
| | Regular occupation | 439(81.1) | 102(18.9) | | |
| Economic status | High | 86(73.3) | 31(26.7) | 15.667 | .000 |
| | Moderate | 510(86.1) | 82(13.9) | | |
| | Low | 208(78.2) | 58(21.8) | | |
| Problem behavior of parents | Father | 9.85(.16)* | 10.58(.37)* | (-1.963) | .050 |
| | Mother | 7.00(.14)* | 8.02(.38)* | (-2.545) | .012 |
| Communication | Open type | 18.04(.20)* | 17.18(.50)* | (1.571) | .118 |
| | Adjusting a mood type | 10.10(.11)* | 10.04(.27)* | (.210) | .834 |
| | Sacrifice type | 10.32(.10)* | 10.17(.26)* | (-.503) | .616 |
| | Insincerity, browbeat, valuation type | 26.40(.38)* | 30.57(.98)* | (-3.961) | .000 |
| Ill-treatment | Nonintervention | 14.85(.20)* | 16.53(.49)* | (-3.147) | .002 |
| | Physical ill-treatment | 10.60(.18)* | 12.96(.48)* | (-4.613) | .000 |
| | Emotional treatment | 10.09(.18)* | 12.32(.47)* | (-4.408) | .000 |
| Family function | Family attachment | 17.33(.16)* | 16.35(.39)* | (2.493) | .013 |
| | Taking charge of children | 19.45(.17)* | 18.66(.42)* | (1.882) | .060 |

경험군: 12.32±0.47, 비가출 경험군: 10.09±0.18)도 가출 경험군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p=.000), 정서적 학대(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 기능의 경우 가족 애착은 가출 경험군(16.35±.39)과 비가출 경험군(17.33±0.1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3), 부모 감독은 가출 경험군(18.66±0.42)과 비가출 경험군(19.45±0.1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0).

대상자의 사회·환경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사회·환경 관련요인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분석은 <Table 4>와 같다. 사회·환경관련 요인에서 학교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가출 경험군(8.91±0.32)과 비가출 경험군(8.00±0.1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6). 반면 교사와의 관계 평균은 가출 경험군(9.75±0.31)이 비가출 경험군(9.96±0.13)보다 낮았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517). 친구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가출 경험군: 12.17±0.44, 비가출 경험군: 10.12±0.14),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가출 경험군: 18.21±0.51, 비가출 경험군: 15.14±0.21), 비행 친구의 수(가출 경험군: 29.13±0.79, 비가출 경험군: 20.90±0.33)에서 가출 경험군의 평균이 비가출 경험군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p=.000), 비행에 대한 친구태도(p=.000), 비행 친구의 수(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애착도(가출 경험군: 32.83±0.54)와 친구에 대한 필요도(가출 경험군: 7.73±0.26, 비가출 경험군: 7.53±0.18)에서는 가출 경험군과 비가출 경험군 사이 비슷한 평균을 보였으며, 친구에 대한 애착도(p=.927)와 친구에 대한 태도(p=.46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가출 경험 위험요인

<Table 4>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runaway experiences according to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tudents (N=974)

| Variables | Classification | Runaway | | t | P |
|--------------------------|--------------------------------------|----------------|----------------|---------|------|
| | | None M(SE)* | Have M(SE)* | | |
| School -related variable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 8.00(.14) | 8.91(.32) | -2.762 | .006 |
| | Relationship with teachers | 9.96(.13) | 9.75(.31) | .648 | .517 |
| Peer-relating variable | Attachment to friends | 32.78(.23) | 32.83(.54) | -.091 | .927 |
| | Necessity of making a friend | 7.53(.18) | 7.73(.26) | -.739 | .460 |
| | Pressure by friends to be delinquent | 10.12(.14) | 12.17(.44) | -4.390 | .000 |
| | Friend's attitude on delinquent | 15.14(.21) | 18.21(.51) | -5.571 | .000 |
| | Numbers of delinquent friends | 20.90(.33) | 29.13(.79) | -10.347 | .000 |

<Table 5> A prediction model for runaway in high school students

| Factor | Parameter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are | Pr Chi-square | Odds Ratio (conditional) |
|--------------------------------|--------------------|----------------|-----------------|---------------|--------------------------|
| Intercept | -11.168 | 13.395 | .695 | .404 | |
| <Individual factors> | | | | | |
| Smoking(Have) | 1.269 | .341 | 13.836 | .000 | 3.556 |
| Sexual intercourse(Have) | .661 | .282 | 5.501 | .019 | 1.937 |
| <Family factors> | | | | | |
| Economic status(Moderate) | -.711 | .323 | 4.853 | .028 | .491 |
| Ill-treatment(Emotional) | .047 | .021 | 4.828 | .028 | 1.048 |
|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 | | | | |
| Numbers of delinquent friends | .049 | .013 | 14.254 | .000 | 1.050 |

-2LL = 433.060 Model Chi-Square = 142.313 df = 7 p = .000
 % Correct Predictions = 84.8 Nagelkerke's R² = .338
 Hosmer-Lemeshow test Chi-Square = 10.050 df = 8 p = .262

대상자의 가출 경험 위험요인은 <Table 5>와 같다. 개인 관련요인에서는 흡연 경험과 성 경험이 대상자의 가출 경험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 관련요인에서는 경제 상태와 학대 경험 중 정서적 학대가 대상자의 가출 경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관련 요인에서는 친구요인 중 비행친구의 수가 대상자의 가출 경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출된 5개의 예측 변인 중 흡연 경험의 승산비(odds ratio)가 3.556으로 다른 예측 변인에 의해 대상자의 가출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Table 5>, -2LL 값이 433.060이었고 모델 카이제곱(Model chi-square)값도 142.313(df=7, p=.000)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잘 적합 되었다. 또한 Hosmer-Lemeshow 통계량 값도 10.050(df=8, p=.262)로서 모형 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4.8%이었고, Nagelkerke's R²=.338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에 의해 대상자의 가출 경험 변동 비율의 약 3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흡연경험과 성경험이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Lee 등(2006)은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의 예측요인으로 흡연 경험과 성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다른 많은 선행 연구(Chung, 2000; Chung & Ann, 2001; MacLean, Embry, & Cauce, 1999)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흡연을 많이 하며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Kim과 Kim(2005)은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허용성이 높으며 이는 성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흡연과 성 경험은 또래문화가 용납되는 장소, 즉 가출을 통한 또래들만의 은폐된 장소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아동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그들의 욕구를 먼저 사정하고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정 관련요인으로는 경제 상태와 정신적인 학대가 고등학

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ang(2003)의 가출 청소년 대한 실태분석에서 가정의 경제 수준이 “중·하”와 “하”에서의 가출 경험집단은 50%, 비가출 경험집단은 24.7%로 가출 경험 집단의 경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 된 결과와 가출 경험군과 비가출 경험군 간에 가정 경제 수준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Park & Kim, 2002)와는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가출 경험도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물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족의 기능적 문제가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한 반복 연구를 통해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과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 사이 존재하는 가족 기능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학대가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정서적 학대를 보고한 선행연구(Chung & Ann, 2001)와 일치하며, 청소년의 가출에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Bae & Joen, 2002; Lee et al., 2006; MacLean et al., 1999)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출행동의 원인적인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소년기 아동을 둔 가족을 간호 시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통해 실제적인 요구에 맞는 가족치료와 아동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관련 요인 중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관한 위험 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수가 보고 되었다. 이는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수가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Cho(2004)와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비해 친구의 비행 정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Bae와 Joen(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기에 친구집단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집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집단간의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쉼터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차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평소 어떠한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여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는 것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어짐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이론

적 틀은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개인, 가정,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규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재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청소년기 아동을 관리하고 간호하는 간호현장에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위험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모색된다면 고등학생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과 관련된 개인, 가정, 사회·환경 관련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인과관계성 조사연구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974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 까지였으며, 자료 분석은 목표 변수 선택 방법(Purposeful selection method)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인과성 관계를 검정하여 예측된 위험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표집 단위에 따른 편이가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출 경험의 개인관련 요인으로는 흡연경험과 성경험이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가출 경험의 가정관련 요인으로는 경제상태와 학대 경험 중 정서적 학대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가출 경험의 사회·환경 관련요인으로는 친구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수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최종 예측모형은 -2LL 값이 433.060이었고 모델 카이제곱(Model chi-square)값도 144.313 (df=7, p=.000)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잘 적합 되었다. 또한 Hosmer-Lemeshow 통계량 값도 10.050(df=8, p=.262)로서 모형 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4.8%이었고, Nagelkerke's $R^2=.338$ 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에 의해 대상자의 가출 경험 변동 비율의 약 3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주고 있으므로, 고등학

생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간호실무적 측면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환경 관련 영향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함으로써 가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실무현장에서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이론적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된 본 연구의 최종 예측모형은 청소년 관련이론의 발전에도 일면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간호연구 측면에서 상황관련이론수준의 본 연구는 가출 예방을 위한 상황생성이론수준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청소년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검증된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Bae, M. J., & Jeon, G. Y. (2002). A study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lescent's runaway drive: Focusing on personal, familial, school and peer variables. *J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23-35.

Cho, H. L. (200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juvenile delinquency among runaway adolescents. *Dongguk J of Public Administration*, 31, 171-198.

Cho, Y. Y. (2005). *A study on extent of runaway youths and the prevention of their miscondu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Chonbuk.

Chung, H. H. (2000).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Chung, H. K., & Ann, O. H. (2001). Predicting factors on youth runaway impuls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7(4), 483-493.

Go, S. H. (1992). *Studies on defind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Han, M. H., & Yoo, A. J.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Hong, E.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ang, S. R. (2003). *A study on the runaway of the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im, H. H. (2001). Factors related to the beginning delinquent behavior and the continuous delinquent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8(1), 143-162.

Kim, H. S., & Kim, H. S. (1998).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1), 190-201.

Kim, J. C. (1999). *Research on sexual awareness and investigation on circumstance of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Kim, J. H., & Park, M. S.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friends and juvenile delinquenc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m, J. H., & Park, J. S. (1995). *A research on the juvenile drug abuse-in terms of smoking and drinking*.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m, J. S., & Kim, K. H. (2005). A study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permissiveness for male student of middle school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2(4), 169-194.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1995).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rruption and its control juvenile delinquency*.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Statistical data of Adolescent*. Seoul.

Kwon, M. Y. (1997). *The individual, familial, and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drug-abus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Lee, J. H., Kim, K. H., Kim, H. Y., & Chung H. K.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runawa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3(3), 161-179.

Lee, S.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their ego state of adolescent who has experienced runa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MacLean, M., Embry, L., & Cauce, A. (1999). Homeless adolescents' paths to separation from family: Comparison of family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victimization. *J Community Psychol*, 27(2), 543-555.

Park, Y. H., & Kim, T. I. (2002). The factors of juvenile runaway in terms of runaway scale. *The Korea J of Youth Counseling*, 10(2), 81-99.

Park, Y. S. (2002). *A crisis model for the earl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owers, J., Eckenrode, & Jaklitsch, B. (1990). Maltreatment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Child Abuse & Negl*, 14, 87-98.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Pers Soc Psychol*, 55(3), 432-444.
- Ruby, J. M. (2006). Understanding runaway teens. *J Child and Adolesc Psychiatr Nurs*, 19(2), 77-88.
- Slensick, N., Vasquez, C., & Bittinger, J. (2002). Family functioning, substance use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Hispanic vs. Anglo runaway youth. *J Ethn Subst Abuse*, 1(4), 83-101.
- Straus, M. A. (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ay E Hefle and C. Henry Kempe(ed.). *The Battered Child*. pp86-10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pson, S. J., Zittel-palamara, K. M., & Forehand, G. (2005). Risk factors for cigarette, alcohol and marijuana use among runaway youth utilizing two services sectors. *J Child Adolesc Subst Abuse*, 15(1), 17-36.
-